



## 2012 북엑스포아메리카 인협, 한국인쇄문화관서 수출 지원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2012북엑스포아메리카(2012BEA)가 열렸다.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북엑스포아메리카에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인쇄물 수출을 지원했다.

정리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사진 | 이종찬 국제부장 kpa@print.or.kr

2012북엑스포아메리카(2012BEA)가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뉴욕 자비츠센터에서 열렸다.

북미 최대의 출판관련전시회인 북엑스포아메리카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국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직지를 비롯한 한국 인쇄 문화를 홍보했다. 또한 수출업체 정보가 담긴 영문 홍보물을 배포하고, 수출상담을 지원했다. 미국, 유럽 등의 최신 동향을 파악, 국내 인쇄물 수출업체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구매자들이 원하는 내용에 대응하는 상담과 함께 해당 업체를 연결해 주는 활동도 펼쳤다. 아울러 수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향후에도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북엑스포아메리카(BEA)는 뉴욕, LA, 시카고, 워싱턴DC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이번 전시회에는 5만여 명이 전시장을 찾았다.

### 5개사 직접 참가 15개사 위탁 전시

한국인쇄문화관에는 청아문화사, (주)두산동아인쇄, 문성원색(주), 아시아프린팅, (주)글로벌프린트팩 등 5개사가 직접 참가했으며, 타라티피에스 등 15개 업체가 위탁 전시했다.

Printing Korea의 타이틀로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로 구성된 한국인쇄관은 각 참가사마다 독립적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로운 상담을 보장했으며, 우수 인쇄물 및 위탁 전시 업체의 브로슈어 전시 및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 이에 이번 전시회에서 250여 건의 상담 건수와 200만 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다.

## 한국 인쇄 인지도 높이고 실질 성과 유도

북미 최대 규모의 출판 전시회인 북엑스포아메리카에 참가한 인협은 실질적인 성과 확충에 주력했다. 한국 인쇄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인쇄사가 실제 및 잠재 구매자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또한 해외 주요 출판계 및 인쇄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 한국 인쇄문화 현황, 협회 소개 등 한국의 우수한 인쇄문화에 관한 패널을 제작, 관람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인쇄문화의 역사와 현황, 주요 수출업체의 명단이 포함된 영문 홍보물과 한국 인쇄문화 홍보용 리플릿도 곳곳에 배치했다.

또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와 현존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한국의 옛 인쇄방식에 따라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 박엽지 인쇄 등 고급컬러인쇄물 선보인 청아문화사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는 고급컬러인쇄를 비롯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박엽지 인쇄물 등을 작업하는 회사다. 이번 전시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전문 사전, 시리즈 교재물 등을 전시했다.

## 고품질 인쇄물 내세운 (주)글로벌프린트팩

(주)글로벌프린트팩(대표이사 배성민)은 상업 인쇄, 패키지

등 다방면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수출 중심의 인쇄사이다. 이번 전시회에 도서, 잡지, 동화책, 학습 교재를 비롯해 요리 책자, 페인팅 잡지, 코믹북 등 고품질을 요구하는 인쇄물 등을 전시했다.

##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 내세운 (주)두산동아인쇄

두산동아 그룹내 인쇄 사업부인 (주)두산동아인쇄(대표이사 성낙양)는 각종 책자와 상업인쇄물, 라벨, 패키지 등 다양한 형태의 인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다양한 형태의 캘린더, 양장서적, 무선 책자 등을 출품했다.

## 다양함과 고품질 내세운 아시아프린팅

아시아프린팅(대표 이국홍)은 이번 전시회에 다양한 인쇄물을 선보여 전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의 인쇄물이라도 고품질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각종 책자를 전시했다.

## 패키지 인쇄물 출품한 문성원색(주)

문성원색(주)(대표이사 김국진)는 패키징인쇄, 인쇄출판, 후가공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맺고 있으며, 필리핀에도 UW마케팅 INC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패키징인쇄물 및 무선제본책 등을 출품했다. ↻



1. 직지 시연 행사를 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2. 박엽지 인쇄 등 고급컬러인쇄물 선보인 청아문화사 3. 고품질 인쇄물 내세운 (주)글로벌프린트팩  
4.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 내세운 (주)두산동아인쇄 5. 다양함과 고품질 내세운 아시아프린팅 6. 패키지 인쇄물을 출품한 문성원색(주)  
왼쪽면. 북엑스포아메리카에 직접 참가한 청아문화사, 두산동아인쇄, 문성원색, 아시아프린팅, 글로벌프린트팩 관계자와 이종찬 인협 수출지원센터 부장